

수명을 관장하는 별, 노인성

제주의 빼어난 자연환경은 인간의 오랜 욕망인 무병장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노인성의 이야기에서 장수의 섬으로서 제주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다.



남성로 | 서귀포시 호근동 317-4 ~ 서귀포시 서흥동 581-3(약 1.5km)

태평로 | 서귀포시 서호동 136-1 ~ 서귀포시 동흥동 68-12(약 5.8km)

남성중로 | 서귀포시 서흥동 684 ~ 서귀포시 서흥동 564(약 1.8km)

남성중로153번길 | 서귀포시 서흥동 590-1 ~ 서귀포시 서흥동 621(약 0.3km)

하논로 | 서귀포시 서흥동 1352-1 ~ 서귀포시 서흥동 548-2(약 0.9km)

속골로 | 서귀포시 호근동 1625-4 ~ 서귀포시 호근동 1409-2(약 1.4km)

남성로 | 노인성

남성로는 옛지명인 남성마을 명칭을 반영하여 부여된 이름이다. 남성마을은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알려진 남극노인성과 관련된 이름이다. 제주도는 장수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탐라순력도>의 대정양로, 정의양로 등 노인잔치의 모습을 그린 그림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제주는 전통적으로 장수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장수의 기운은 중국에까지도 알려졌는지 진시황의 신하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에 오기도 했다. 제주의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생각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서 정한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밤이면 하늘에 떠오르는 별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사를 지냈다. 남성로를 따라 삼매봉 정상에 오르면 별과 관련된 신앙유적인 남성대를 만난다. 남성대는 과거에 남극노인성을 바라보던 곳이라고 한다. 남극노인성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별로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라고 한다. 북반구에서는 보기가 힘든 별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 별을 보는 사람은 장수를 누리고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수성(壽星)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성이 나타날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노인성이 유난히 잘 보이면 큰 연회를 열기도 했다. <고려사>에는 노인성이 떠오르자 왕이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까지도 노인성에 제사를 지냈다. 무병장수의 상징인 노인성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였다. 그래서 제주를 방문했던 문인들의 글에는 노인성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제주에 유배를 왔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에도 노인성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인지 추사 김정희가 머물던 곳을 수성초당이라 부르기도 했다. 제주 사람들이 예전부터 장수했고, 오늘날에도 장수의 섬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노인성의 기운 덕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삼매봉을 지나는 남성로에는 별을 통해 무병장수를 꿈꿨던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태평로/남성로 | 외돌개

서귀포 시내를 가로지르는 길은 태평로이다. 태평로는 서귀포시의 무궁한 발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태평로는 서홍동의 일주동로에서 갈라져 시내를 통과하고 동홍동에서 다시 일주동로와 이어진다. 태평로는 서귀포 시가지 서쪽의 오름 사이를 지

난다. 삼매봉에 이르러 태평로에서 갈라진 **남성로**를 따라가면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로 잘 알려진 외돌개가 나온다. 외돌개는 20m정도 되는 높이의 바위가 바다에 혼자 외롭게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에는 애절한 부부애를 보여주는 전설이 전한다. 옛날 이 마을에 금슬이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 험한 바다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할머니는 오매불망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그대로 돌이 되었다. 그래서 외돌개를 ‘할망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고려시대 목호의 난을 토벌하러 온 최영 장군이 범섬에서 최후의 항진을 하고 있는 목호들을 물리치기 위해 외돌개를 장군처럼 꾸미자 목호들이 그것을 보고 대장군의 모습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자결을 했다고 한다. 오늘날 외돌개는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외돌개를 지나는 제주올레 7코스는 올레길 중에서도 아름다운 해안 경치를 자랑해 올레꾼들이 선호하는 길이다.



외돌개

남성중로 | 서귀포층

남성로와 만나는 **남성중로**는 서귀포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해안가의 절벽으로 드러난 서귀포층은 제주의 지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주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이유에는 좋은 물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제주는 다른 지역의 땅과 달리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대부분의 물들이 지하로 스며든다. 이 물들은 지하에서 흐르다가 지층의 틈새를 통해 곳곳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데 이것을 용천수라 부른다. 옛날 제주 사람들은 식수를 얻기 위해 용천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래서 마을의 형성이나 역사적 사건에 얽힌 용천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서귀포층

지하로 스며든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서귀포층 때

문이다. 제주도가 만들어질 초창기에 형성된 서귀포층은 물을 잘 통과 시키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 지하수를 모아주는 창고 역할을 한다. 제주가 먹는 샘물로 유명하게 된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중로를 따라 해안가에 이르면 땅 속에 있는 서귀포층을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서귀포층패류화석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서귀포층을 비롯해 서귀포층에 박혀있는 오랜 옛날 살던 조개류, 산호, 성게 등의 화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세계지질공원의 명소로 지정되었다.

남성중로153번길 | 기당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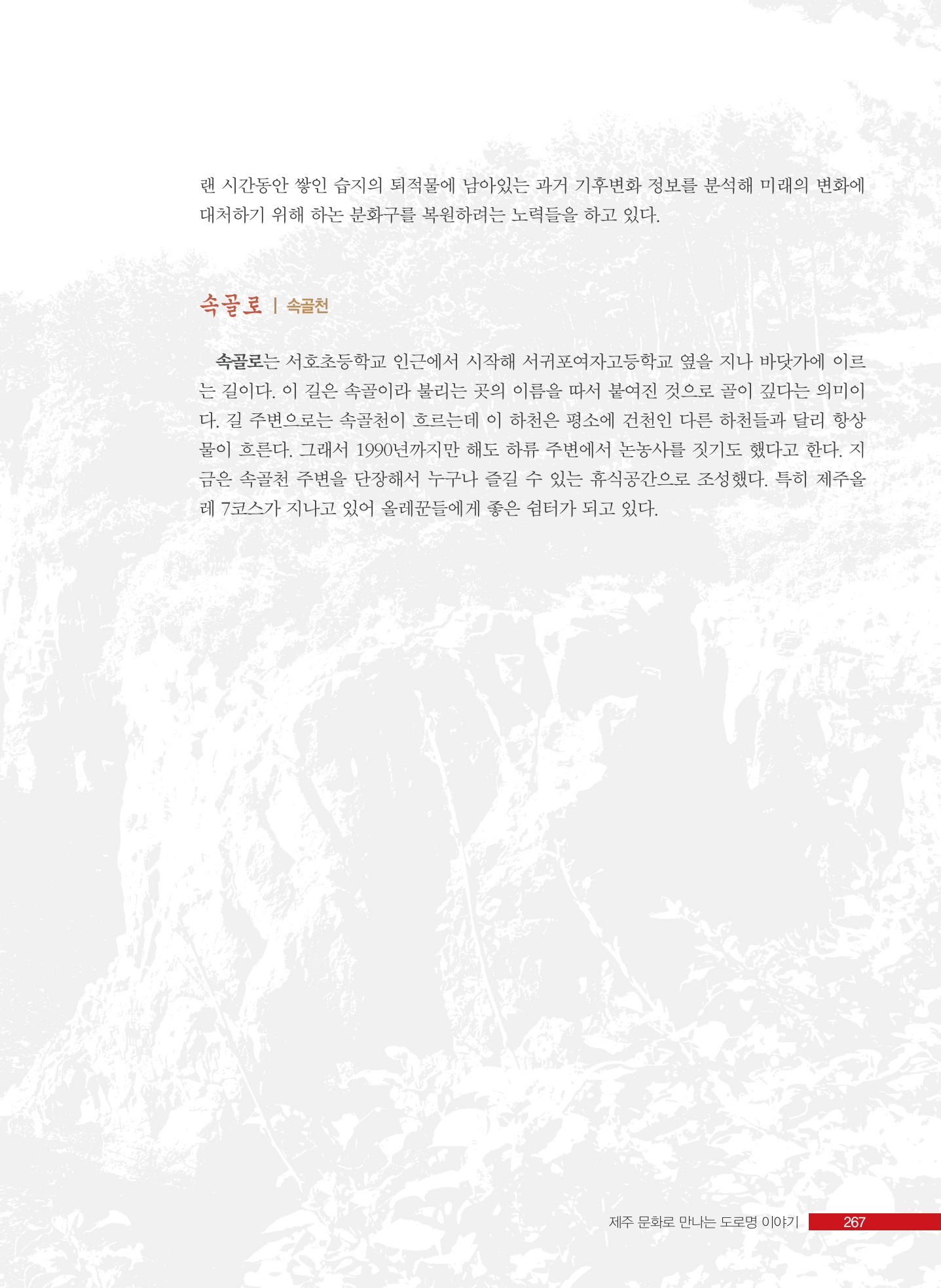
삼매봉 동쪽 **남성중로153번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이 있다. 기당미술관은 재일교포 기당 강구범 선생이 건립해 서귀포시에 기증했다. 이 미술관은 변시지 화백의 그림이 있는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서귀포 서흥동에서 태어난 변시지 화백은 어릴 때 일본에 건너가 서양화를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1975년에 제주에 돌아온 변시지 화백은 제주에서 평생을 살며 자신만의 제주 풍경을 그린다. 그의 그림은 ‘황토빛 제주화’, ‘폭풍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독특함을 보여준다. 변시지 화백의 작품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제주에서 제주를 그리며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한 그의 삶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기당미술관에서는 변시지 화백의 그림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하논로 | 하논 분화구



하논

태평로와 일주동로를 잇는 **하논로**에서는 하논 분화구를 만난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생긴 하논은 작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라고 한다. 하논은 큰논(大畚)이라는 뜻이다. 옛부터 제주는 물이 잘 빠지는 땅이어서 논농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쌀이 매우 귀해 제사 때가 아니고서는 흰 쌀밥을 먹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몇몇 물이 고이는 곳에서는 논농사를 짓기도 했다. 하논 분화구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최근에 와서는 하논 분화구의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



랜 시간동안 쌓인 습지의 퇴적물에 남아있는 과거 기후변화 정보를 분석해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하논 분화구를 복원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속골로 | 속골천

속골로는 서호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작해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옆을 지나 바닷가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은 속골이라 불리는 곳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골이 깊다는 의미이다. 길 주변으로는 속골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은 평소에 건천인 다른 하천들과 달리 항상 물이 흐른다. 그래서 1990년까지만 해도 하류 주변에서 논농사를 짓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속골천 주변을 단장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제주올레 7코스가 지나고 있어 올레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있다.